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MARROW THIEVES

가제 : 꿈 도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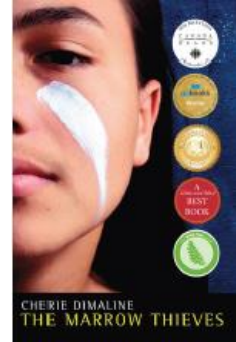
저자 : Cherie Dimaline

출판사: DCB

발행일: 2017년 9월 1일

분량 : 26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 캐나다 총독 아동문학상 수상(2017), 커커스 아동문학상(2017), 캐나다 온타리오 정부의 명망 있는 문학상 ‘트릴리엄 북 어워드’ 결승 후보(2018), 「스쿨 라이브러리 저널」 올해의 책(2017)
- * “감정적인 깊이가 엄청나게 깊고 다정한 등장인물들은 독자를 원주민의 복잡한 상황에 관심과 연민을 갖도록 이끈다.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려진 소설 속 디스토피아는 우리로 하여금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 「커커스 리뷰」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이 점점 줄고 인류 전체가 위태로워진 미래의 어느 시대, 북미 대륙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모집원’이라 불리는 정부 관리들이 공부를 시켜준다는 핑계로 어린 원주민들을 잡아들여 기숙학교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다른 목적을 이루려고 한 것이다. 바로 아이들의 골수를 채취하는 일이었다. 생존을 위협 받는 현실 속에서 갖가지 문제가 속출했지만 사람들이 더 이상 꿈을 꾸지 않는 이상한 현상까지 나타났다.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꿈을 잃는다는 건 곧 멸망을 의미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이 이상한 현상은 백인들에게서만 나타났다. 놀란 과학계가 집중적인 조사에 나선 끝에, 북미 대륙에 사는 인디언의 DNA에 꿈꾸는 능력을 되살릴 수 있는 열쇠가 들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꿈 연구부’까지 설립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던 정부는 극단적인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어린 인디언들을 잡아서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연구 재료와 치료제를 골수에서 얻겠다는 잔혹하고 이기적인 사냥은 이렇게 시작됐다. 실제로 인디언 혼혈 혈통으로 태어난 작가는 물불 가리지 않는 모집원들의 사냥을 피해 달아나는 어린 소년 프렌치와 여러 나라에서 도망친 인디언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끄는 리더 미그완스의 긴박한 탈출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다. 꿈을 꿀 수 있다는 이유로 소모품처럼 쟁취해야 할 대상으로 다뤄지는 인디언들의 목숨 건 투쟁과 탈출은 오래 전 실제로 북미 대륙에서 벌어진 백인들과의 치열한 대립을 연상시키며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넘나든다.

정부가 인디언들을 노린다는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때만 해도 가족 모두가 북쪽으로 떠날 계획이었다. 프렌치의 아버지는 이미 도시에서 쫓겨난 지 1년이 지나 겨우 찾은 작은 오두막을

또 다시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분개했다. 하지만 자신들의 살 곳과 먹을 것을 마련하기 위해 인디언들부터 내쫓는 백인들의 막무가내 식 공격을 막아낼 힘도, 방법도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린 프렌치가 보기에 아버지의 분노에 어딘가 이상한 구석이 있었다. 엄마의 만류로 프렌치나 형 미치는 자세한 내막을 더 이상 듣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온 몸을 떨 만큼 두려워하게 만든, 뭔가 다른 문제가 생긴 것 같았다. 그러나 가족의 도주 계획은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며칠 뒤 다른 부족민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정부와 협상을 하고 오겠다며 떠난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엄마와 두 형제만 점점 조여오는 관리인들을 피해 서둘러 달아나야 했다.

북쪽으로 하염없이 올라가던 중, 형제는 엄마도 잃고 말았다. 버려진 양로원 옥상에서 통조림으로 허기를 때우며 다시 하룻밤을 지낸 그 날, 아버지가 사라진 뒤 늘 폭 꺼진 엄마의 두 눈은 유난히 더 초점이 없었다. 해골처럼 바싹 마른 얼굴로 프렌치와 미치에게 억지로 희망을 불어 넣어 주려던 엄마는 다음 날 새벽, 마지막으로 남은 식량이 없나 빨리 둘러보고 오겠다며 혼자 나갔고 그것으로 끝이었다. 둘 만 남은 형제는 서로 의지하며 엄마아빠에게 배운 것들을 떠올리며 힘겹게 이동했다. 그러나 절대 한 곳에 오래 머무르면 안 된다던 아빠의 당부에도 며칠 연이어 비가 내리는 바람에 나무 위에서 찾은 작은 집에 3일간 머무르던 프렌치와 미치는 결국 모집원들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형의 고집스러운 재촉 때문에 프렌치만 나무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간 사이, 형은 모집원들 손에 붙들려 차에 태워졌다. 겨우 열한 살인 프렌치 혼자만 남은 것이다.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과 굶주림,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정신 없이 달아나던 프렌치는 병이 들고 숲에 쓰러지고 만다. 이제 다 끝났다고 체념한 그 때, 미그완스가 프렌치를 구해낸다. 왁, 지그원, 리리, 미네르바, 차이보이, 슬로퍼 등 프렌치처럼 모집원들을 피해 달아나던 인디언들로 이루어진 그룹을 만난 것이다. 겨우 목숨을 건진 프렌치는 한 가족처럼 뽕뽕 뽕친 친구들과 함께 끝을 알 수 없는 도망 길에 다시 오른다.

이야기는 열한 살에 미그완스의 무리에 합류한 프렌치가 열여섯 살이 될 때까지 이들과 함께 숨어 지내며 북쪽으로 향하는 여정과 함께 오염으로 망가진 환경과 사라진 해안선 등 이들이 두 눈으로 목격하는 처참한 현실을 보여준다. 더불어 이 젊은 청년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 조부모님에게 듣고 자란 인디언들의 안타까운 역사도 함께 들려준다. 독특한 소재로 인간의 이기심과 그럼에도 사라지지 않는 배려와 사랑, 함께 할 때 얻을 수 있는 힘을 그린 특별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체리 디말린(Cherie Dimaline)은 캐나다 프랑스인과 북미 인디언의 혼혈인 메티스 혈통으로 태어나 편집자, 소설가로 활동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2007년에 출간된 데뷔작 『Red Rooms』을 시작으로 『The Girl Who Grew a Galaxy』, 『A Gentle Habit』 등을 발표했다. 토론토 국립박물관 최초로 원주민 출신 상주 작가로 선정된 경력이 있다.

제목 : WORTH A THOUSAND WORDS

가제 : 말 보다 사진 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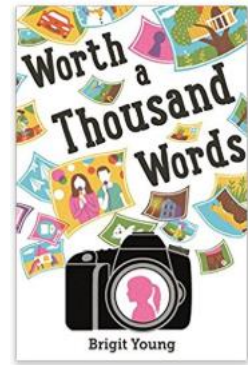
저자 : Brigit Young

출판사: Roaring Brook Press

발행일: 2018년 8월 14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12세 이상 소설



- * 이탈리아, 독일 판권 계약 체결 / 먼저 출간된 이탈리아에서 ‘프레미오 안데르센 상(Premio Andersen Award)’ 수상(12세 이상 부문)
- * “주인공 킬리는 상쾌한 공기처럼 다가온다. 달콤하고, 섬세하면서 강렬하다.” – 이탈리아 소설가 레진 라 라디오사(Regin La Radiosa)
- * “그리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책이 아니다. 읽고 나면 아주 많은 것이 남고, 언제나 웃음 짓게 하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게 하는 그런 소설이다.” – La Stamberga D'Inchiostro

반 친구들 사이에서 ‘분실물 보관소’라는 독특한 별명으로 불리는 킬리 그린은 원래 있는 듯 없는 듯 눈에 띄지 않는 아주 평범한 여학생이었지만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소중한 취미 생활 덕분에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었다. 바로 카메라였다. 일곱 살 때 큰 사고를 당한 후 다리를 절게 된 킬리에겐 할아버지는 카메라를 건넨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온 가족이 열광하는 축구에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좌절하지 말라고, 더 넓게는 세상에 재미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절망하지 말라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 시작된 사진 찍기는 이제 킬리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취미가 되었다. 매일 학교에 카메라를 매고 가서 반 친구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포착하고 저녁에 한 장씩 넘기다 보면 그냥 만나서 대화하거나 수업시간에 보는 걸로는 절대 알지 못했을 새로운 모습이 속속 발견됐다. 사진 한 장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진실이 담길 수 있는지, 그 묘미를 알게 된 것이다. 그런데 킬리의 사진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단서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은 한 남학생이 묘한 부탁을 하면서 킬리는 탐정 노릇까지 하게 된다. 그가 찾아달라고 부탁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 그것도 자신의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킬리에게 ‘분실물 보관소’라는 별명이 처음 붙은 건 학기 초, 반에서 가장 예쁘고 그래서 인기가 많은 다이애나가 다이아몬드 팔찌를 잃어버린 사건 때문이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르겠다고 난리 치는 다이애나를 보면서, 킬리는 여느 때와 같이 오전에 이런저런 사진을 찍다가 킬리의 손목에서 번쩍이던 팔찌를 분명히 본 기억이 났다.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살펴보니, 미술 수업 후 개수대에서 손을 씻는 다이애나가 찍혀 있고 그 사진에는 분명 팔찌가 있었다. 조용히 그 개수대로 가보니, 팔찌는 다행히 바닥에 떨어져 그대로 있었고 다이애나는 킬리의 과거에 호들갑을 떨면서 ‘세상에 이렇게 유능한 분실물 보관소 봤니, 애들아!’ 하고 소리쳤다. 킬리가 걱정하고 남의 비밀이나 숨은 행동을 골라 찍는 건 절대 아니지만 실제로 사진 속에는 무심코 하는 동

작이나 순식간에 지나간 가장 솔직한 표정이 담기기도 했다. 메리가 시를 읊는 데션을 보면서 눈에서 하트를 뿜뿜 쏘아대는 표정이라던가 클레이가 학생 식당에서 급식 아주머니에게 반찬을 가지고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 톰 윌슨이 로렌과 나란히 앉아 탁자 밑으로 뭔가 주고 받는 모습도 릴리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사진으로 남은 순간들 덕분에 릴리의 반 친구들은 잃어버린 물건을 여러 번 찾아낼 수 있었고 릴리는 혼자만 아는 많은 비밀이 생겼다.

발을 저는 바람에 교실을 이동하려면 남들보다 배는 더 걸리는 릴리가 바쁘게 복도를 지날 때 앞을 가로막은 제이크는 릴리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중학교 입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릴리가 그 날도 절뚝거리며 복도를 지날 때 과장된 몸짓으로 흉내 내고 깔깔대던, 그래서 절대 잊지 못한 짓국은 아이들 중 한 명이 바로 제이크였다. 1년여가 지난 뒤, 제이크는 그런 사실을 까맣게 잊은 듯 릴리를 붙들고 제발 부탁 좀 들어달라고 사정했다. 아빠가 3일째 행방불명인데, 같이 찾아달라는 것이다. 어쩌다 '분실물 보관소'로 불리고 물건은 찾아준 적이 있지만 탐정은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제이크는 막무가내였다. 엄마는 출장을 갔다고만 하는데 지역 가전제품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출장을 갔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 이상한 정황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제이크의 끈질긴 설득에 마지못해 돕기로 한 릴리는 2인조 수사팀의 한 사람이 되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그러나 두 사람의 추적은 너무나 충격적인 진실로 이어진다.

릴리가 태어나 만난 선생님들 가운데 가장 멋지고 능력 있고 학생들을 진심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미술 선생님이 분명 제이크 아버지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는 단서가 드러난다. 그런데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진실을 찾느라 혈안이 된 릴리는 부모님에게 제이크와 사귀다는 오해를 받게 되고, 카메라를 빼앗긴 채 외출 금지 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다. 그러나 우려는 사실이었다. 제이크의 아버지는 마르티네즈 선생님과 1년 전 학부모 초대 수업에서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고 그 사실을 제이크의 엄마가 알게 된 후 집을 나가버린 것이다. 제이크에게는 직접 이야기하기로 해놓고 차마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겁하게 피하는 동안,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긴 줄만 알았던 제이크는 릴리까지 동원했는데 정작 사라진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던 셈이다. 제이크보다 먼저 진실을 알게 된 릴리는 마르티네즈 선생님과 제이크의 아빠가 함께 있는 곳을 찾아가 고래고래 소리를 친다. 두 사람이 만든 이 엄청난 사태에 대해, 릴리가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께 느낀 실망감에 대해 다 쏟아낸다. 제이크도 한 발 늦게 사실을 알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마음은 많이 다쳤지만 가장 힘든 시간을 함께 한 두 사람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된다.

릴리의 사고를 자기 탓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딸의 눈을 오래 쳐다보지 못하는 릴리의 아빠, 릴리를 짝사랑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괜히 릴리에게 잃어버린 물건 좀 찾아달라고 했던 뜻밖의 인물 등 릴리는 제이크와의 일을 겪으면서 사진에 남모를 비밀이 담길 수 있지만 모든 진실이 담길 수는 없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다. 장애, 이혼, 따돌림, 십대들의 이성문제 등 중요한 소재들을 너무 무겁지 않게, 하지만 깊이 있게 다룬 성장 소설이다.

<저자 소개>

브리짓 영(Brigit Young)은 뉴욕에서 글을 쓰고 있다. 위 소설이 데뷔작이다.